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 김홍호 |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에 대하여..
(편집자 주).



오늘 설교 제목을 ‘날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는 데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에는 걸리는 것이 많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복잡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내 속이 복잡하다 혹은 내 속이 괴롭다고 한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나?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이란 어떤 곳인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간단할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참 간단하고 쉽게 산 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살면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넘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살면 세상이 슬프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세상에 속해서 물에 자꾸 빠진다면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이 좋습니다.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며,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는가. 하늘에 속해 있다. 속하기는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살기는 여기에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아멘이고, 한 없이 감사하지 그 이상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는 말을 하는데 하늘에 속해 있으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럴 때에 날개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날개가 달리지 않았나 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어디에 살았나 하면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신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고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금방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지면 날개가 자꾸만 작아진답니다. 자꾸만 작아져서는 나중에는 날개가 없어지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땅에 푹 떨어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떨어진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서, 지혜를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면 또 다시 날개가 돌아나고, 날개가 자라면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희랍 사람들의 옛날 그림을 보면 말에도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박혁거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말에도 날개가 달렸겠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날개 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국의 26살 난 어떤 청년이 자전

거에 비닐로 날개를 달고 그 뒤에 프로펠러를 하나 달았는데 이 프로펠러를 아무리 돌려도 빠죽빠죽,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꼬리는 뒤에 달지 않고 앞에 달았는데 바로 페달을 움직이니까 자전거가 떠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서 80리를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물에서 20m 떠서 영국 해안에서 프랑스 해안까지 2시간 10분인가 걸려서 건 갔다는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날개를 가졌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개라고 해도 좋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유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자유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만 영이 아니라 우리도 영이다. 우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날개라고 해도 좋고, 자유라고 해도 좋고, 영이라고 해도 좋고, 요전 시간에 말한대로 성숙이란 말을 써도 좋습니다.

여기 ‘성숙’이라고 쓴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돌이었다.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 개미들은 얼마나 땀을 흘리며, 그 돌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러나 벌레가 나비로 성숙하면 길가의 돌맹이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만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돈도 연애도 사업도 학문도 명예도 인기도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될 때에는 해결은 없고 문제가 안 될 때 문제는

없어지고 만다.

인간의 신비는 성숙에 있다. 성숙하여 어른이 되면 어릴 때 문제가 그림과 같다. 문제를 푸느라고 애쓰는 동안에 인간은 성숙하여 문제는 없어져버린다. 성숙해지는 일이다. 성숙한 사람에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에게는 죽음마저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세상에 죽음처럼 큰 문제가 없고 죽음처럼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고기든 생선조림이든 모두 죽음을 먹고 살아간다.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한다. 자기의 죽음을 먹을 수 있을 때 인간은 고치를 벗어나 나비가 된다. 죽음은 인간을 정말 성숙하게 하는 맛있는 양식이다. 자기의 죽음을 극복한 사람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죽음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 정말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어진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밖에 산이 있다고 하면 산을 깨고 길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싸움, 고민, 가책, 죽음, 이런 문제는 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성숙해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벌레가 고치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것, 이렇게 인생의 3단계를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얼’이라 하고, ‘자유’라 하고, 오늘은 ‘날개’라는 말로 씁니다.

내가 확실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내게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학생은 애벌레이고,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치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은 무엇인가. 나비로 봐야 합니다. 영어 선생, 그러면 영어를 훨훨 난다, 훨훨 나니까 나비죠. 그래서 옛날부터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 “선생님, 기체후 일항만강하십니까?” 기체후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인가. 액체후입니다. 대학원생은 뭔가. 고체후입니다.

선생님들은 날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들이 선생이 되면 다 풀리고 말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그렇게 어렵던 문제들이 선생 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떻게 못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좀 늘여본다, 며칠 몇 분 늘여보면 뭐합니까. 죽음이란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넘어가야지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부활이라면 곧 생각하는 것이 저 유태 땅의 예수님의 무덤만 생각하지요. 그 무덤은 구멍은 동그랗게 뚫었다고 그러더라. 돌로 막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누가 봤을까. 뭘 감고 있었을까. 뭘 입고 있었을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외적인 사실, 물리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날개라는 말을 썼지만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시다. 내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확실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내게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칠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그립니다. “그리스도가 잡은 부활의 가능성을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은 내 속에도 잡힐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속에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토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날개라는 말 대신 가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내게 날개가 있다, 내게 있는 그 날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겁니다. 아, 이거로구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즉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그걸 내 속에서 매일매일 증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 이거로구나! 그것이 믿음 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가능성을 어디서 붙잡나 하면 십자가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부활의 가능성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다. 부활한다는 말은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나비고, 십자가는 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나비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한 것 같지만 사람을 고난 속에 집어넣어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여성들이 아주 뽀족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약해 보이죠. 그런데 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올라가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횡단하고 종단도 했는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백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데 지리산 꼭대기에서 이화여대생을 한 80명가량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학생이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들기 어려우리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에 처해서 자기의 강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처하여 자기의 불멸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

을 넘어서는 영성(靈性)이 있습니다. 이 영성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또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체라고 합니다. 영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것이 십자가요, 나비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비가 되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온전하게 영원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부활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입니다. 죽는 것, 사는 것을 초월한 내가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내가 부활입니다. 날개가 부활입니다. 나비에게는 죽음도 삶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삶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지, 이런 삶이 못 되면 죽어도 못 살고, 살아도 못 죽습니다. 이런 삶이 대아(大我)의 삶입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하루를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전5권) 세트

김흥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흥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흥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를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흥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애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김흥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흥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인 원본집주주역(명분당)을 사용했다.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刊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학자 김흥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나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흥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刊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